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2년 2월 25일 (금)

News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 조선비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 숨 고르기 차원에서 이달 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
대통령 선거 2주 앞 시점인 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운으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 미쳤다는 평가

토뱅 30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 8500억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 이사회를 통해 3,000억원의 유상증가 추진하기로 결의… 이는 출범 후 두 번째로 주주사들의 동의 하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짐
이를 통해 총 8,500원의 납입 자본금 확보… 수신 가능액은 약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신규 주주로는 웰컴캐피탈 합류

은행 대출 연체율 작년 12월말 0.21%…"코로나 금융지원 착시효과 감안해야" 서울경제

작년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 역대 최저수준 기록… 분기 말에 연체채권 관리 강화해 분기 중 상승했다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
대출 부문별 연체율 하락,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하락,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월비 0.03%p 하락… 2020년 4월부터 유지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처에 따른 착시 효과

우크라 사태에 은행권도 긴장…비상계획 속속 수립 e대한경제

4대 은행의 러시아 관련 익스포저는 총 6,037억원… 특히 현지에 법인 두고 있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960억원, 2,664억원
대부분은 사무소 운영 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황 악화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 준비 중… 신흥국 외화 불안정성 가능성에 특히 주목… 단기 외화 조달 영향 때문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 확정…관련법 개정안 마련 EBN

금융당국, 내년부터 K-ICS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경과조치 운영방안 확정…. 시행 이전 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요건 미충족이더라도 모두 가용자본 인정… 요구자본도 경과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 허용… RBC비율 100% 상회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기차 덜 타면 보험료 더 할인"… 삼성화재, 손해율 관리 나섰다 머니S

삼성화재, 전기차 적용 마일리지 특약 환급율을 내연기관차보다 3~5% 높게 책정… 전기차 보급 확대되며 사고건수 늘어나가 손해율 관리 나서…
전반적으로 개인용 전기차보험은 꺼리는 분위기… 다른 손보사들도 손해율 관리에 본격 들어간 모양새

서학개미 덕분에 증권사 외화증권 수수료 1조 육박...삼성·키움·미래에셋증권 선두 다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작년 증권사 27곳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 8,508억원으로 전년대비 55.6% 증가… 특히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
미래에셋증권은 1,530억원으로 3위 기록… 대형 증권사 쏠림 현상 심화… 다만 SK증권, 다이와증권, 리딩투자증권, DS투자증권 등 5곳은 수수료 수익 감소

기관 짬짜미 수요예측에…금융당국도 메스 들이댄다 이데일리

기관들의 '뻥튀기 주문'으로 수요예측의 가격 결정 기능 훼손되며 정치권까지 지적 확대… 많이 적어내는 것은 관행이지만 허수 주문을 걸러낼 장치는 없어…
금융위원회, 수요예측 문제 관련 전반적인 규정 개선을 금감원과 함께 검토 중… 특히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 이어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